

인사말

인사동, 조계사, 경복궁은 불교문화와 유교문화 등 우리 전통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종단은 인사동, 조계사, 경복궁을 연결하는 전통문화지구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해 왔으며, 그 결과 전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고건 전 서울시장님의 합의를 통해 우정충국을 복원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대한불교조계종과 서울시가 공동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업무협약식> 또한, 서울시민과 외국인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전통문화공간 조성이 서울 도심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2년 전부터 우리 종단과 서울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왔습니다. 견지동 주변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처리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의 업무협약은 그러한 모든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중에도 많은 서울시민과 외국인이 조계사를 방문하고 있지만, 주말에는 조계사 경내가 외국인 방문객들로 넘쳐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한 조계사, 경복궁 심지어 청와대 주변까지 외국인 방문객들이 타고 온 버스들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단순 관람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 주변 상권에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우리 종단은 오늘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이 사업의 성공적 회향을 위해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주요 사찰 주지스님들을 이 자리에 모신 것도 향후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 동참을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이고 과감한 사업추진을 기대합니다.

불기2557년 8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